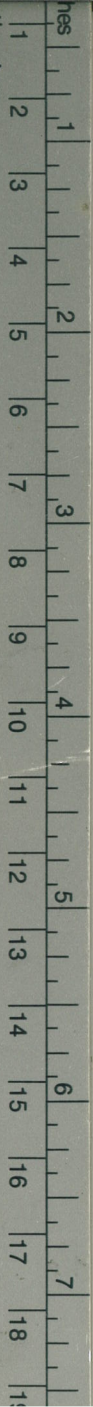


一九八〇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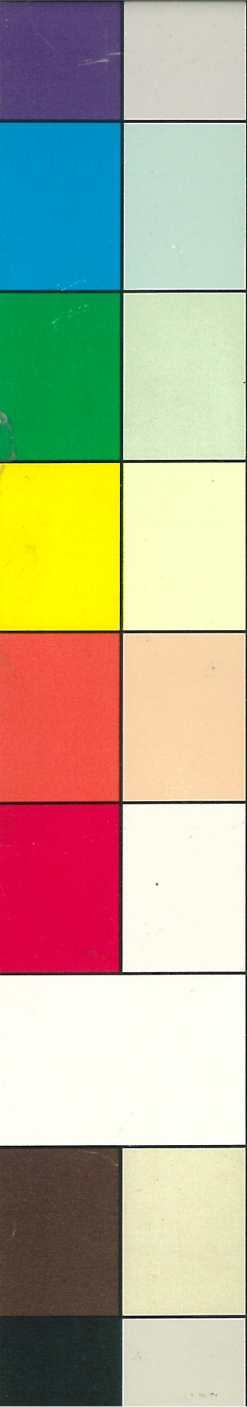


우
순
소
리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一 굴송사

일일은 행인들이 길을 가다가 해변에 굴 한개가 잇난
것을 보고 한사람이 짐으라한즉 동행하던 사람이 말하
되 「여보 가만잇소. 우리 들중에 그굴을 누가 먹어야
할소」 「아 그야 몬져 본 사람이 먹고 그다음 본사람
은구경이나 하지오」 「그럴레면 내눈이 썩 밝소」 「되
은 보기만 하였지오 나는 만져 쓰지 보았스니 엇지하
랴오」 피차닷들썩에 엇던 량반 한분이 지나 가거늘
행인 들이 굴송사 판결 하기를 청한대 그량반이 그굴
을 쪽의여 속은 삼켜 바리고 썩질는 한쪽씩 들의게
논화 주면서 갈오대 「너의 소위난 송사부비들 물닐 것

이나 심분 용서 하야 굴뚝질 하나씩 주는것이니 아모
말도 말코가라」하더라

사회하야 반 엇는것이 송사하야 다 일년것 보다
낫다

二 외양 차례

하로는 여호가 길가다가 한곳에 이른즉 사람이 만히
되혀 화반석 으로 삭인 인형을 보고 칭찬 하거늘 여
호가 한참 보다가 돌아서 가며 하난말이 「외모는 좃타
마년 속이 업서 걱정이다」

당세 부귀 대신 들을 보낸 이어호가 무엇이라
할지

三 고양이의 원숭이

고양이의 원숭이가 한집에 정다게 사년대 들의 작난이
무쌍하야 원숭이난 보난것마다 흠치고 고양이난 쥐잡기
난 마음이 업고 찬장만 드나들더니 하로는 화로에 밤
긋년것을 보고 원숭이가 고양이를 불너 말하되 「형님
저 군밤을 쓰넷스면 우리들이 잘 먹겟소 마는 내손은
형님처럼 재지가 못하니 형님이 쓰내시오」그말을 듯고
고양이가 화로의 재를 헛치면서 밤을 하나씩 쓰내놓는
대로 원숭이난 벗겨 먹더니 주인이 들어오매 고양이난
발만 데이고 밤은 맛도 못보고 도망하더라

외인의 심부름으로 미국하는 사람들 생각 좀 하

시 오

四 사심의 썰

하로난 사심이 내사에서 물을 먹다가 불속에 빗치난
 썰그림자를 보고 조화 하는말이 「썰이야 흉농하다 썰을
 보면 내가 날중일색이엇 마는 다리가 장뚝 갖야야 분
 하다」하고 탄식하더니 별안간 산양개가 쫓쳐 오기를
 업시 너기던 다리가 나는듯시 뛰여 위경을 면할뻔 하
 였더니 그썰이 나무가지에 걸녀 달아나지 못하고 잡힌
 지라 사심이 한숨쉬여 갈오대 「외면 처레만 하면 몸을
 망한다」 하더라

외면만 보고 친구 사귀지마라

五 강약부동

사지와 송아치와 염소와 양 네이 동사 산양을 시작하
 야 넋중에 누구던지 짐생 한 마리를 잡으면 네동사가
 고로 난호기로 약조 하엿더니 하로는 염소가 노흔 덧
 헤사심이 잡힌지라 약조대로 동사들을 청할애 사지가
 그사심을 네목에 논하듯코 한목을 차지하며 말하되 「내
 일흥이 사지니 이것은 내목아치요 내가 그중 힘이 세
 니 들재 목아치도 내것이오 내가 그중 담대하니 셋재
 목아치도 내것이요 넷재목아치는 누구던지 죽으랴거든
 근드리라」하고 다 먹어 바리더라

강하고 의 업는 놉과는 동사 마라

六 허욕 만흔 개

개가 고기 한덩이를 훔쳐 물고 다리를 건너 가다가
제 그림자가 물에 비치것을 보고 다른개가 고기덩이를
문졸 알고 빼아스라고 짓다가 제입에 물엇던 고기 사
지 물에 빠치더라

입에 고기 한덩이가 물속에 앓난 고기 두덩이
보다 낫다

七 강한 놈의 경계

하로는 늑대가 내사에서 물을 먹다가 배급흔 제음에
본즉 어린양한 마리가 아래서 물을 먹거늘 늑대가 트
집하되 「이놈아 나먹는 물을 네 엇지 흐리느냐」 양 「령

강은 내 물 우해서 자시고 나는 아래서 먹으니 내가
흐릴수가잇소」 늑대 「작년 봄에 나 못듯는데 내가 육하
엇지」 양 「별 트잡도 만소 작년봄에는 내가 나지도 아
니 하엇소」 늑대 「그러면 네형이 육 하엇지」 양 「그게 두
손 망념이오 나는 형도 업고 아오도 업소」 늑대가 할
말업슴에 눈을 부릅뜨고 꾸짖되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 집안을 보전하던 덕을 모르고 내 말마다 거역하
니 너의 행복과 부강을 속히 도모하기 위하야 너를
먹겠다」 하고 그 양을 먹어 바리더라

약한 놈은 경계도 업고 공법도 업다

八 조심하는 쥐

고양이가 어느 광속에 잇는 쥐를 거운 다 잡어 먹은
 지라 남은 쥐들이 약속하고 구멍 밖씩 나오지 아니함
 애 고양이가 한끼교를 내어 뒷다리로 벽에 잇난 못을
 붓들고 깃구로 단녀 죽은체 하거늘 늘근 쥐 한마리가
 내다보고 하난말이 「애구 이 흥물아 죽은체는 그만두고
 네뺨질에 집홀 너서 노앗서도 네엽헤난 아나가갯다」하
 디라

못된놈 엽헤는 룡으로도 가지마라

九 개누리와 황소

개구리 샷기들이 풀밭헤서 놀다가 황소를 보고 놀나
 불속으로 들어가 그 어미를 보고 말한대 어미개구리가

「고개 무엇이오 어머니가 암만 하기로 황소만 하시겟

소」어미개구리가 점점 분하야 매를괴섯 불니고 못되

「이래도 그놈만 못할가」아직도 멀엇소」어미개구리가 황

소만 하라고 배를 불니다 못하야 필경은 배가 터져

죽더라

강한나라 칭호와 레식만 흥내 내다가 망한 나라

도 잇다저

十 썩썩리

썩썩리가 재매의게 잡혀서 애걸하되 「여보 맥 갓치 큰
 양반이 나갓흔 작은 새를먹난대도 한닙 거리도 못될썩
 더러 내 생애가 소리니 좀 들으시오」재매가 대답하되

「소리도 먹어야 자미지 손속에 든 작은새가 손밖씩잇
난 큰새보다 낫다」하더라

압제 정치 밋히는 말 잘하여도 쓸대업다

十一 배와 수족

하로는 손과 발과 입과 다리가 회의하여 말하되「우리
난 음식 엇어 들이기에 주야분주 하되 배는 아모것도
안코 먹고만 잇스니 이런 경계가 어디 잇나오늘 브
터 우리 약조하고 손은 밥한술 입에 넛차말고 입은
음식 한숟불 씹지말고 발과 다리는 아모데도 가지 말
자」함애 배는 아모 말도 안코 저희 하난대로 두엇디
니 몇철 지나지 못하여 곱홀사록 슈죽은 괴운이 업고

입은 말할 힘도 업고 다리는 썸썸 할수 업난지라 배
가 그제야 말하되「음식을 엇어오기는 너희 일이오 소
화하기는 내일이니 너희가 업서도 나못살고 나업서도
너희 못살터이니 각기 맛흔일을 잘하여 서로 도와주어
야 하지 그러치 안코 각기 제몸만 알면 결단 나나니
라」하더라

十二 보호국

새매가 몇철을 비들기장 근쳐로 도라단여도 비들기 한
아도 나오지안커늘 새매가 웃난 얼골노 장압혜 와서
비들기를 보고 썸우난 말이「나도 날개와 털이잇고
그대들도 날개와 털이 잇스니 우리 조상은 필경 한조

상이오 우리는 갓흔 종류로 가위 동포형데라 근일 본
 즉 삼이 이근쳐로 도라 단이니 그놈의 흥계가 파촉
 한지라 그대들은 련성이 순량하야 잘못하면 남의 압제
 를 당하니 나와 보호약조를 정하면 너가 그대들을 보
 호하야 그대의 종가도 존엄하게 하고 그대네 집도 보
 전하야 여러금수 세계에 그대의 독립과 부강을 태산갓
 처 곳에 헐터이니 엇더하뇨」하고 조흔 쌀아기를 선사
 하거늘 비들기들이 깃버하야 새매를 장속에 마저들여
 보호디감을 삼엇더니 그 잇튼날브터 새매가 비들기 독
 림과 안녕을 유지한다 하고 비들기 한마리씩 잡아먹고
 다먹은후는 그 장사지 차지하더라

제가 제 보호 못하고 남의보호를 엇지 밋으리오

十三 남의 머리

한 대야 머리 산양군이 가머리로 상토하고 단이다가
 바람에 갓이 버셔지고 가상토가 불녀가매 동도들이 조
 룡하거늘 산양군이 우스며 말하되「조롱할것 무엇 잇나
 내 머리가 내 대강이에 붓히잇지 아니할제 남의 머리
 가 붓히잇겠나」

제정부가 제 빅성을 학대할제 남의 나라가 남의
 빅성 후대할가

十四 사지와 사람

하로는 사람과 사지가 맞나 이야기 할새 사람은 사람

의 지혜와 용맹을 자랑하고 사지는 사지의용맹과 지혜
를 칭찬하야 서로 닳투다가 사람이 말하되「네 저 비
를보아라 사람이 사지를 싸려 뉘힌 그림이 아니냐」사
지가 쌀쌀 우스며 대답하기를「그게 무신 어림 업년
소리냐 그비를 사지가 세웠더면 사지가 사람 잡아 먹
던그림을 식엿스리라」하더라

十五 사지와 싱쥐

하로는 사지가 산양하다가 곤하야 나무 밧혀서 자던
사이에 싱쥐 몇마리가 사지 등에 올라놀더니 사지가
새여 압발노 싱쥐 한마리를 잡아 놀너죽이라하다가 싱
쥐의 애결함을 가궁히 너기여 노아 보내엿더니 몇칠후에

그 사지가 산양 그물에 걸녀 죽게 된지라 전일에 살
녀 보냈던 싱쥐가 와서 그물을 쏘라 씌어바리고 사지
를 살너주더라

강한자도 약한자의 덕을 볼새가 잇스니 강함을 밋
고 약함을 능멸하지 마라

十五 일부 량쳐

한 사람이 안해 들을 두엇난대 하나는 점고 하나는
늘근지라 사내 머리에 빅발은 절문 안해가 다 썩야
바리고 검은 털은 늘근 안해가 썩야 바림애 미구에
대야머리가 되엿더라

十六 은혜와 압제

하로는 북풍과 태양이 누가 세력이 만흐냐 하고 서로
 닳들 제음에 한 행인이 숨 두루매기를 입고 가거널
 바람과 벗이 그 두루매기 벋기기로 백이 하자 하고
 북풍은 그힘을 다하야 불매 행인의 두루매기가 불너
 켜나갈듯 하더니 그 사람이 옷고름을 단단히 잡아미고
 두 손으로 옷 자락을 붓들미 바람이 더불수록 벗길수
 업난지라 태양이 바람을 재우고 구름을 물니치며 더운
 벗을 내려 썩이미 행인이 더워서 두루매기를 버서바리
 나 북풍이 태양의 권력을 탄복 하더라

인심을 엿기에 은혜의더운 괴운이 압제의 찬 바람
 보다 낫다

十七 툃기와 개구리

호로는 툃기들이 종회를 모으고 의론하되 「세상에 우리
 갖치 약하고 살수있나 음식 한세를 마음 늦코 먹을까
 잠 한숨을 편히 자볼가 개소리만 나도 놀내고 그람자
 만 보아도 숨으니 이신세를 엿지하나 도모지 물에 싸
 저 죽자—하고 여러 툃기가 연못가으로 나가더니 개구
 리들이 달밤에 물가에서 소창하다가 툃기 오난 소리를
 듯고 놀나 물속으로 다 들어 가거널 툃기 문장이 여
 러 툃기의게 발론하되 「여러분 내말 듯게 우리가 약하
 야 살수 업난줄 알았더니 우리를 보고 두셔워 숨난
 짐승도 잇스니 그짐승이 살적에 우리가 죽을것 무엇잇

나」하고 다 각기집으로 가더라

十八 술이의 지각

절문 술이가 병이 들어 죽게 된지라 그 어미더러 청
 향되 「어머니 인제는 할수 업스니 명산덕천과 절간에
 기도나 좀 향시면 내 병이 나을넌치오」어미 술이가
 대답향되 「어느 명산 대천과 절간에 가서 네나 내가
 도적질 아니한데가 잇스면 몰으되 그러치 안으면 우리
 기도를 누가 듯겠니」하더라

님군을 속이고 백성을 학대하야 나라를 망하여 늦
 코 불공과 산천 기도로 나라 잘되기를 비난 사름
 들은 이술이 지각만 못하도다

十九 사지의 청혼

산중에 사난 사름이 일석 쌀을 두엇더니 사지가 와서
 청혼하거녔 감히 막지 못하야 대답하되 「대왕님 갓흔
 사외를 두엇스면 오직 조켓소 마난 내쌀이 어리고 약
 하야 겁이 만흐니 대왕의 이와 발톱을 다 빼면 혼인
 하겟소」한대 사지가 그식시를 탐내야 이와 발톱을 다
 빼고 왓거녔 신부 아비가 몽둥이로 싸려 잡더라

二十 나무살과 붓처님

나무살들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다가 한 아해가 독
 괴를 일코 찾지 못함애 그 근처 절에 가서 붓처님씩
 빌고 차져 달나자하야 여러아해들이 그 절을 향하야

가다가 종로에서 그 절 중몇처 내려오거늘 나무꾼이
어데 가나냐 물은대 중의 대답이 「어제 밤에 절에 도
적이 들어 불기를 일히 바리고 원님씨로 차저달나고
정하려간다」하난지라 독괴일흔 나무꾼이 말하되 「제
절에서 일흔 그릇도 찾지못하년 붓처가 남의 독괴 차
저 줄수 잇것나」하고 허여저 가더라

二十一 흑백 분명

숫 장사가 그 친구 마전장을 보고 갖차 살기를 청
한디 마전장이가 되답하되 「로형의 정분은 곰아우나 내
생애는 검은것을 희게하고 로형의 생애는 흰것을 검은
하니 우리는 싸루 살어야 의가 상하지 안겟소」하더라

二十二 여호와 두루미

하로는 여호가 두루미를 청하야 저녁을 먹을새 납작한
접시에 멀건 국물을 담어 논지라 두루미는 한목음도
삼키지 못하고 여호가 다 할터먹거늘 몇철후에 두루미
가 여호를 청하야 점심 되접 하난디 목 긴 병속에
고기를 쓸어 너흔지라 두루미는 그 주둥이로 잘 새내
여 먹으되 여호난 한점도 못먹고 가면서 두루미의 디
객 잘못함을 책망하더다

二十三 여호와 염소

하로는 여호와 염소가 동행하다가 목이 말음에 돌이
우물에 들어가서 물을 먹고 본즉, 나올수가 업난지라

여호가 임소다려 「여보 로형이 우물가를 벗티고 서면
 로형의 썰을 드디고 내가몬져 나가서 로형을 썰어내리
 다」한디 염소가 고지듯고 압발노 우물가를 벗티고 이
 러서니 여호가 썰을 드디고 나가서 들여다보고 조롱하
 난말이 「이 못생긴것아 네 지각이 네 수염 반만하여도
 내썸에 빠지지 아니하였것다 나는 볼일 잇서 가니 천
 천히 나오니라」하고 가더라

二十四 공과 무신한 사람

두사람이 흙한 산길을 갈때 환란 상구 하기로 언약하
 고 가더니 한산골을 들어서매 별안간 곰이 압홀 막난
 지라 들중에 한사람은 몸이가벼운 고로 나무우흐로 썩

여 올라가고 하나는 밋쳐 피할수 업서 썸에 업디려
 죽은체 하였더니 곰이 업디린 사람의 낼새를 맞혀 보
 더니 과연 죽은줄 알고 가거널 나무우헤 올랐던 사람
 이 내려와서 부르되 「여보게 앓가 보니 곰이 자네 귀
 에 대고 무삼 말하난것 갓흐나 무어시라 하더냐」하니
 업디렸던 사람의 대답이 「이다음에는 자네갓흔 의리 업
 난 사람과는 동행하지 말나 하데」

二十五 나귀의 실수

한 사람이 나귀 하나 강아지 하나를 두엇더니 나귀가
 본즉 강아지는 아모 재조도 업시 주인 압헤서 썩리나
 치고 썩기나하며서 조흔 음식을 엿어 먹고 주인이 귀

염을 밧거널 나귀 생각에 「나도 강아지 하난대로 하
 리라」 하고 하로는 그 주인 압헤 가서 쇠리를 저으며
 강아지 송내를 내다가 주인의 웃난것을 보고 더 담뉜
 하야 주동이틀 주인의귀에 다이고 괴운섯 한번 울고
 압발을 주인 여개에 언고 뒗발은 주인 무릅 우헤 노
 으러하거널 주인이 놀나 하인을 불너 채썩 으로 싸려
 마구로 모러 늦거늘 나귀가 탄식 하난말이 「저 맛흔
 직분은 바리고 남의 송내 내는 놈은 채썩이 맛당하다」
 하더라

二十六 질항아리와 주석항아리

한번은 장마에 강물이 창일하야 질항아리와 주석항아리

가 썩나갈새 주석 항아리가 질항아리를 보고 「여보 로
 형과 내가 동병상련이니 우리 갓치 갑시다」 질항아리가
 대답하되 「말삼은 고맙소마넌 로형과 내 성품이 달나서
 서로 마주치면 내가 결단이니 싸로 놈시다」 하더라
 조선 사람이 강한나라 사람하고 동사 하려거든 이
 질항아리 말을 생각 하라

二十七 쇠리 업난 여호

여호 한놈이 함정에 빠져 나오니라고 쇠리를 일은지라
 남의게 우슴새리가 될줄 알고 썩을 내여 여러 여호
 회중에 가서 연설 헬새 첫재는 쇠리가 쓸데업슴을 말
 하고 들재는 여호 쇠리가 위생에 방해 됨을 말한후

다 쉼리를 배여 버리자 한덕 회중이 당황하야 아모말
도 못하고 서로 보기만 하거녔 그중에 늑수구러한 여
호가 나서서 말하되 「나도 쉼리를 일어 바렸더면 저
친구 갖치 말하겄소 마넌 쉼리가 잇스니 아즉 그티로
지내겄소 하더라

二十八 脛 거름

어미 脛가 샓기 脛다려 거름을 빗두로 것넌다고 脛짓
거녔 샓기 脛가 대담하되 「나는 어머니 하시난 티로 하
니 어머니가 바로 脛으시면 내 脛러 가리다」 하더라

二十九 외쉴넌 脛과 배암

하로는 배암이 대장간에 들어가 사면으로 먹을 것을

찾다가 脛을 깨물녀허거녔 脛이 우수며「오냐 잘 먹어
라 나는 본래 脛을 脛기나 하고 보래지는 안넌 脛
품이니 슬겄 먹어 보아라」 하더라

三十 운수

하로는 어린 아해가 작난하다가 곤하야 우물두덩에 드
러누어 자더니 운수가 지나가다가 보고 그 아해를 脛
여 같오대 「네 덕으로 살기는 살엇다 마넌 만일 우물
에 빠졌더면 세상 사람들이 네 脛 업넌것은 말안코내
탓만 하엿슬 터이니 억울치 아느냐」 하더라

三十一 금알 낫넌 거위

한 사담이 거위 한 마리를 두엇더니 매일 황금알 한

개식 낫년지라 탐심이 발동하야 거위 배속에 잇난 금
알을 한번에 다가질 욕심으로 거위를 잡아 배를 갈으
고 본즉 아모 것도 업서 금알도 일코 거위도 업재더
라

백성을 죽여가며 재산을 한번에 빼앗다가 필경 재
물과 빅성과 나라를 다 일취바린 사람들도 적지안
치

三十二 개개 불닌 사람

한 사람이 개개 물닌지라 어느 로파가 방문을 가르치
되 석 한조각을 물닌데 문지르고 그 개를 먹이라 한
대 그리 하였더니 한 친구가 말하기를「여보게 그 말

누구더러 말게 사람 물고 석 먹으면 어느개가 사람
물지안겟나」하더라

三十三 참나무와 나무썩

하로는 나무썩 하나히 큰 참나무밖에 들어가 돌아 단
니더니 늘근 참나무가 무엇을 찾나냐 못거늘 독기 자
루할 무푸레 나무를 구한다 한대 참나무들이 의론 하
고 하나를 주엇더니 나무썩이 독기에 자루를 맛춘후에
참나무를 하나식 다 죽여내난지라 그중 노성한 참나무
가 탄식하되「권세 자루를 남의 손에 너흐면 나라도
망하난대 참나무야 더 할말 잇나」하더라

三十四 말과 사람

말이 사심과 싸화 이기지 못함애 사람을 와 보고 원수를 갑하 달나 하거널 사람이 허락 하고 말게 안장을 짓고 재갈을 먹인후 올라타고 사심을 쫓차 잡은지라 말이 그 은혜를 감사 하고 안장과 재갈을 뱃겨달나 청한대 사람이 말하되「네원수를 갑해주어서 네 권리를 존중케 하고 네 독립을 보호하며 네 부강을 도모 하였스나 평생 내 종노릇 해라」하고 잡아 매거널 말이 탄식하되「작은 원수를 갑흐려다 큰원수를 만나스니 내가 독립 못한 탓이라 누구를 원망 하리요」하더라

三十五 여호와 원승이

산중 대왕 사지가 죽음애 여러짐승들이 도회하고 새왕을 뽑을새 원승이가 흉내도 잘내고 나무에도 잘 올으고 썩도 만타하야 왕으로 뽑힐애 원승이가 권리를 탐하야 다른 짐승들의게 교만하며 도식이 자심한지라 여호가 분히 너기여 하로는 고기 한덩이를 덧속에 넋코 원승이게 폐현을 청하야 재배하고 알외되「신이 오다 보오니 고기한덩이가 저기 잇사오니 대왕씩서 거동하사 잡수시압소서」하거날 원승이가 여호의 충성을 깃버하야 대동당상을 식히고 훈장을 나린후 그 고기 잇년 곳에 가서 압발노 고기를 썰어 내려하다가 덧치 등귀며 원승이 발이 잡힌지라 그제야 여호의 간계를 새닷고 꾸

즈진대 여호가 우스며 덧노흔것도 모르고 눈압해 적은
리만 람하니 너갓흔놈이 왕이 다 무엇이나」하고 다라
나더라

三十六 비둘기와 개미

하로는 개미가 목이 말나 강사에 가서 물을 먹다가
빠져 썩나려 가거늘 비둘기가 보고 가련히 녀기여 나
무가지를 물에 던져 개미가 타고 살아 나왔더니 그후
에 포수가 그 비둘기를 노흐랴고 총을 견우거늘 개미
가 그 발뒤꿈치를 쏘와 견양을 일케하야 비둘기 은혜
를 갑더라

三十七 생쥐 방울 단다

한 큰집에 쥐 잘 잡년 고양이가 잇서 쥐를 멸종할
디경이 된 지라 쥐들이 비밀히 종회를 부치고 그 고
양이를 업시하거나 피할 도리를 강구할새 의론이 분분
한중에 가장 어린 생쥐 하나히 나서서 회장을 부르고
동의 하되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엇스면 그놈이
쌈작만하여도 쌀낭할터이니 우리는 썩 맛추어 피하난것
이 상책 이겟소」한대 회중이 대희하야 손벽을 치며
갈채 하거날 그중에 늘근쥐 한마리가 수염을 쓰다드며
웃고 하난말이 「저 어린 친구의 계획이 좃키는 좃소
마년 누가 가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년저 가실이
잇거던 손 드시오」함애 회중이 아모말 못하고 다 허

여지더라

三十八 어리석은 하인

한 마누라님이 첫닭이 울면 집안사람을 깨우던지라 하
인들이 단잠을 못자고 싸쉴한 자리에서 이러나기를 슬
여하야 그닭을 업시하였더니 마누라님이 시간을 알수
업슴애 느즐가 염녀호야 반밤만 지나면 하인들을 깨
우니 하인들이 마지 못하야 닭 한마리를 사다 놓더라

三十九 외양간에 개

외양간에 썰도 만코 죽도 만흔데 개가 들어 누엇더니
소가 배가 곱혀 들어가 썰을 좀 먹으려 한즉 개가
짓고 못먹게 하거날 소가 꾸짖는 말이 「이놈아 너도

못먹고 남도 못먹게 하니 무신 심사냐」 하더라

四十 차부와 부처

한 차부가 전쌍에 차를 몰고 가다가 박휘가 흙에 박
히여 움지기지 안년지라 차부가 두손을 부비며 관세음
보살을 불으며 박휘를 빼여 줍시사 빌고 섯거늘 부처
가 「이무식한 백성아 책죽으로 말을치며 네 엇개를 박
회에 대고 힘써 밀면 차가 썩러질터인데 나만 불으고
섯스니 너 할일은 아니하면 누가 네일을 보아 주것너
냐」 하더라

四十一 쌍속에 잇년 재물

한 농부가 죽을때에 그 아들 형데를 불너 유언하기를

「내가 평생 절오했야 모은돈으로 황금멧덩이를 사서
 녀의들 주년 밧해 한자씀 깎히파고 못엇스니 부즈런히
 잘 파보라」하고 세상을 버린후에 그 아들이 금덩이
 를 찾나라고 밧홀 깎히 갈고 농사를 부즈런히 하야
 큰 돈을 모은지라 그제야 그 부친의 의사를 깨닫고
 더욱 부즈런히 농사 하야 다 만석군이 되더라

四十二 시기와 욕심

하로는 욕심 만흔 사람과 시기만흔 사람이 부처님 압
 해 가서 각기 소원을 말하려 할새 부처님이 갈오대
 「누구던지 몬져 말 하는자는 소원 성취할것이요 그
 다음 말 하는 자는 몬져 원한자보다 곱절을 더 잘

되리라」한대 욕심심 만흔 사람은 무엇이던지 곱절 더
 만히 엇으려고 몬져 말 안거닐 시기 만흔자는 저 잘
 되년것 보다 남 잘못되년것을 좃케 녀기여 욕심 만흔
 자의 두눈 멀기를 바라고 비년말이 「부처님 나는 한눈
 만 멀녀 주소서」하더라

四十三 재매와 농부

재매가 썩을 썩다가 조밧해 쳐노흔 그물에 걸닌지라
 농부씩 애걸하년말이 「내 평생에 생원님씩 해로운 일한
 배 업스니 살녀 주시오」하거닐 농부가 우스며 대답하
 되 「그러면 썩은 내게 무신 해로운 일을 만히 하엿기
 네가 잡으려고 썩쳐단니너냐」하더라

四十四 제비의 충고

제비가 세계 유람을 널리 하야 지식이 출중한지라 하로는 농부가 노سن 쉼년 삼씨를 심으년것을 보고 생각하니 그 삼이 잘아면 노سن이 되야 그물을 썬서 들에 잇년 새들이 만히 잡힐터이라 제비가 그동포를 사랑하년 마음으로 여러새들을 모아 늦코 연설하되「저 삼이 잘아면 우리 동포의게 큰해가 될터이니 우리가서 삼씨를 낫낫히 다 집어먹어 후환을 업시하자」하고 지성으로 권한대 여러새들이 우스며 혹은 말하되「맛업년 삼씨 먹너니 다른 곡식 먹지」하며 혹은「아모라 하기로 나야 잡힐가」하며 혹은「오활한 소래 마라 그런짓

안코도 우리 사천년이나 잘 사렸다」하며 혹은「애고 나는 늘것스니 설마 내 생전에야 엇덧겜나」하고 제비 말을 듯지 안터니 미구에 삼씨가 잘아서 짝이 파릇 파릇 나넌자라 제비가 다시 새들씩 연설하야 아직도 늦지 아느니 어린 짝을 모도 먹어바리자 하되 새들이 듯지 안코 도로혀 제비더러 밋쳤다 하며 물정할 모른다 하며 역적을 모의한다하야 몽둥이로 썬려 썬쳐서 새총중에 들지 못하게 하였더니 몇달후에 그 삼이 무성할애 농부가 거두어 썬술을 벗기여 노سن을 썬와 새 그물을 썬서 새들 수업시 잡아 업시하니 그제야 새들이 제비의 충고를 생각하고 듯지아니함을 후회 하더라

후회도 안난 사람 보다난 낫다

四十五 종달새의 지각

종달새가 수수 밧헤 샓기를 두고 날개 나기전에 일꾼
들이 와서 수수를 베여갈가 염녀하야 먹을것 구하려
나갈때 마다 샓기들의게 당부하야 밧 님자가 오거든
무신말하나 자세히 드러두라 하고 나가더니 하로는 집
에 도로온즉 샓기들이 무서워 벌벌떨며 「어머니 어머니
큰일 낫소 앓가 밧 님자가 그 아들 더러 내일은 동
내사람들을 좀 청하야 수수를 베이라하니 오늘 밤이라
도 꼭 이사합시다」 하거늘 어머니가 우스며 「걱정 말고
잠이나 자거라 동내사람을 청하려면 내일은 일 못한

다」하고 그잇흔날 어머니가 또 여전히 나가더니 일직
이 밧님자가 밧헤 와서 동내 사람을 기다려도 오지
안닌지라 그 아들더러 말하되 「이것 보아라 동내사람이
라고밧을수 잇느냐 래일은 우리 일가 사람들을 좀 청
하야 일 좀하야 달나자」하고 가거늘 저녁에 새샓기들
이 그어미를 보고 밧님자가 하던말을 다하고 밤으로
떠나자고 졸은대 어머니가 래연히 저녁을 먹으며 하년
말이 「일가도 쓸데 업너니라 아모 염녀말고 래일 또
밧님자의 말이나 잘 드러 두어라」하고 그 잇흔날 또
버리하러 나가더니 밧님자 부자가 와서 좃일 기다려도
일가사람 하나도 오지안닌지라 밧님자가 분하야 아들더

러일이되 「동내 친구도 쓸데 업고 일가사람도 밋을수업
스니 래일은 낮 들만 잘 갈어 가지고 나고 너고 들
이 이수수를 베여바리자」하고 가거널 어미새가 도로와
그말을 듯고 「어린것들아 인제년 우리가 이밭을 썬야
살겟다 누구던지 제일을 제가 하려들면 다 되나나라」
하고 그밖년날 일직이 다른 밭흐로 이사 하엿더니 과
연 그날 밭넘자부자가 수수를 다 베이더라

네일을 잘 하려거든 네가 하고 잘 못하려거든 남
식혀라

四十六 여호와 신 포도

하로는 여호가 길늘 가다가 배가 곱흐던차 포도넝쿨에

포도송이가 뚝흔데 늘어진것을 보고 먹으려고 썬여도
키가 자라지 안년지라 할수 업서 가며서 하는말이 「못
된 포도 갓트니 너 갓치 시고 싹은 포도를 누가 량
반이 먹것니」하더라

四十七 양과 늑대의 평화조약

늑대가 양을 잡아 먹으려 하나 수직하년 깨가 무서워
마음대로 못하더니 한번은 늑대가 투명전권공사를 보내
여 양들을 썬여 갈오대 「우리가 본래 형데갓흔 처디에
이와 입설 갓치 서로 의지 할터인데 간혹한 깨들이
반간하야 원수가 되엿스니 자금이후로년 평화조약을 정
하야 영원히 안녕을 보호하고 독립부강을 도모하되 불

모가 업스면 밋기가 어려우니 그대네들은 개를 볼모잡
 하고 우리는 샓기들을 볼모잡하여 피차의 의심 업슴을
 표하자」하거녜 양들이 대희 하야 외부대신 훈일등을
 보빙대사로 정하야 늑대굴에 가서 평화조약을 매즌후에
 각기 볼모를 교환 하였더니 늑대가 개는 죽여 바리고
 양더러 말하되「우리 샓기들의우년 소리를 들은즉 필
 경 너희가 학대 함이니 약조를 배반하였다」하고 양
 을 다 잡아 먹더라

四十八 나귀의 지각

나귀 한놈이 소곰 한바리를 지고 물을 근너다가 너머
 저서 소곰이 다 물에 풀녀 업서짐에 짐이 가벼워 매

오 편한지라 그다음에 솨 한바리를 싣고 물을 근넢씩
 에 소곰바리 생각을하고 진젓 너머졌더니 솨에 물이
 배혀 몇갑절이 더 무겁더라

四十九 돛기와 자라

토세가 자라의 둔하고 재조 업넢것을 흥보고 활 한밭
 탕즘 표들 세우고 누가 몬저 가나 백이할새 돛기가
 상총상총 뛰여가다 도라보니 자라가 씩철 씩철 하고
 오지못하거녜 돛기가 쌀쌀 우스며「그렇게 것다가넢 백
 날하여도 못오겟다 나는 한잠자고 가겟다」하고 소나누
 밋헤서 누워 잘 동안에 자라는 쉬지도 안코 밧부지도
 안케 제 거름대로 가더니 돛기가 잠을 새여본즉 자

라가 벌써 표세운데 가서 담배 먹고 안젓더라
五十 여호와 평화담판

하로는 여호가 먹음것을 차저단니다가 슯둑 한마리가
나무 우혜 안즌것을 보고 욕심이 동하야 쳐다보고 우
스며 「여보게 동생남 나려오게 여려 즘생들이 만국 평
화회를 꿈이고 삼도안코 서로 잡어먹지도 안기로 정하
였스니 자내와 나도 인제는 형데와 갓흐니 나려와 인
사하고 지내세그려」 숙둑이 쌀쌀 웃고 먼데를 한참
보더니 「저기 산양개 한쌍이 오니 아야 평화회에참네하
고 자내보려 오나봐」 여호가 얼골이 노래지며 「아! 그
런가 내가 좀 밤비 불일잇서 곱가야겄네」 하고 쉼리가

싸지게 다라나더라

五十一 개미와 몇씩기

몇씩기가 여름에 소리나 하고 놀고 먹다가 겨울이 됨
애 귀한이 자심하야 동내사년 개미를 가서 보고 량
식을 구걸하되 몇달만 지나면 장리로 갑흐마 한대 개
미가 못년말이 「여름내 무엇을 하엿기 겨울 량식도 못
작만 하엿나」 「밤낮 노래하고 지넛네」 「그러면 가서
출이나 추게」 하더라

五十二 촌사람의 변덕

한 촌사람이 송아지 한 마리를 일코 사면 차즈되 업
거널 산신씩 빌되 송아치 훔쳐간 도적놈만 찾게하면

도야지 한 마리로 고사지내마 학엿더니 몇거름 가지
 아니하야 본속 큰 호랑이가 그 송아치를 방장 먹고
 안젓거널 촌사람이 혼이 나서 다시 빌되 「산신님 산신
 님 앓가는 송아치 도적놈을 찾게하시면 도야지 한 마
 리를 드리마 하였스나 지금은 그 도적놈 눈에 췌우지
 만 안케 하시면 황소 한마리를 드리오리다」하더라

五十三 농부와 운수

한 농부가 밭갈다가 금 한덩이를 웃어가지고 깃뼘을
 이기지 못하야 그 금덩이를 보고 무한감사 하거널 운
 수가 그 농부다려 말하되 「왜 그 금덩이만 곱압다하고
 내생각은 아니하냐 만일 금덩이를 잃엇다면 내탓 몬

저 하였겠지」하더라

五十四 양과 개

양들이 하로는 수직하년 개를 보고 칭원하기를 「우리
 는 년년히 털을 싹거 쓰고 잡아 먹으며서 먹이기는
 풀만 먹이고 개는 털도 쓸데업고 고기도 못먹으되 귀
 염도 밧고 먹기도 잘하니 이런 고르지 못한일이 어데
 있나」한대 개가 우스며 「네 모르년 소리 마라 내가
 밤낮 너희들을 보호아니하면 늑대와 도적놈이 모도 잡
 어갈터이니 그새는 풀도못 먹으리라」하더라

五十五 여호와 나귀

나귀 한놈이 사지 가족을 쓰고 산중으로 도라담냄애

여러 짐생들이 보고 다라 나가네 나가네 나귀가 깃버하야 여
호를 보고 소리를 질는데 여호가 처음에는 놀넛다가
소리를 듯고 박장대소 하며 하년말이「이 못생긴놈아
사지뺨을 핏거던 입이나 다물고 잊지 누구들 처럼
무엇이니 무엇이니 하고 남의 위엄으로 의괴양양 하
너도 그싸위로구나」하더라

五十六 여호와 숫닭

하로는 여호가 닭을 잡아 먹으려 가다가 덧혜 치인지
라 수닭을 보고 억지로 우수며「아오님 이것보게 자내
보러 오다가 이디경을 당하였스니 자내가 살녀주어야
아니하겠나 가서 막대 하나만 갖다가 덧을 밧치면 내

가 나가서 자내 은혜를 평생 잊지 안겠네」숫닭이 대
답하되「세 조흐면 잡아먹고 위태하면 의 형데니 너
갓흔 소인은 살녀 무엇하리」하더라

五十七 점쟁이

한 점쟁이가 길가에 안저서 점치고 관상 하고 사주
보아 생애하더니 하로는 엇던 소년 하나히 황급히 와
서 점장이집에 불이 났다 한디 점쟁이가 창황히 달녀
가본즉 집에 불난일이 업거늘 그 소년의 허무함을 책
망하니 소년이 우수며「네집일도 모르면서 남의 일을
안다고 점치느냐」하고 가더라

五十八 허바닥 잔치

한 부자가 청직이를 불러 「오늘 여러 손님이 올터이니 돈 앓기지 말고 데일 조흔 음식으로 잔치를 차리라」 하였더니 상들인후 본즉 만반진수를 다 각색 즘생의 혀로 만든지라 주인이 대로하여 청직이를 걱정하되 「혀 빠닥이 데일 조흔 음식이냐」한대 청직이가 대답하되 「혀라 하년 것은 자식과 학문을 발달하년 괴판이요 턴 하에 크고 조흔일이 혀로말미암지 안년것이 업스니 혀 보다 더조흔 물건이 업나이다」여러 손님들이 청직이의 지각을 칭찬 하거늘 주인이 다시 분부하되 「혀가 네마음에 데일 상등 음식이라 하니 내일은 네마음에 데일 하등 음식으로 잔치를 차리라」하고 손님을 청 하였더

니 그 잇은날도 또 각색 즘생의 혀로 상을 차려온지라 주인이 더욱 분하여 청직이를 쏘지저왈 「어제는 혀가 가장 상등 음식이라 하더니 오날은 데일 하등이라 하니 네 감히 나를 희롱하느냐」하고 청직이를 잡아 가두라 한대 청직이가 말하되 「죄는 당하더라도 한말삼이나 알외겟삽나이다」한대 손님들이 주인을 권하야 허락하니 청직이 말이 「세상에 그른일마다 혀가 상관 안년일이 어데 잇스릿가 적으면 패가망신과 크면 나라를 결단 내년것이 다 혀의 조화오니 혀보다 더 못된 음식은 업나이다」하거늘 만당 빈객이 청직이의 의사를 괴특이 녀기여 주인을 권하야 잔치 잘못 차린 죄를

용서케 하더라

五十九 박쥐

하로는 족저비가 박쥐를 잡아 먹으려 한대 박쥐가 살
녀달나 애걸하니 족저비 말이 재를 약에 쓸터인즉 노
흘수 업다 하거늘 박쥐가 대답하되「내 몸을 보면 쥐
가 분명 하고 재가 아니라」한대 족저비가 그리 알고
노화주엇더니 몇칠후에 고양이 가 그 박쥐를 잡아 쥐로
알고 먹으려 한대 박쥐가 소리질너 하년말이「세상에
쥐도 날개잇더니 상관 업년 터에 애매한 재를 죽이지
마라」하니 고양이 가 올케 녀기여 살녀 보내더라

六十 농부와 법학사

한 농부가 한 법률학사를 가보고 하년말이「오늘 아
침에 내소가 댁소를 바다 죽였스니 그러한 가여울데
가 잇소 엇지하면 조켓소」법「그야 다시 두말할것잇소
댁소가 내소를 죽여스니 죽은소 대신 그와 갓흔소를
당장 물어노시오」농부「그 일을 말심이오 아차 그러나
내가 잠간 이젧소 내소가 댁소를 바든것이 아니라 댁
소가 내소를 죽였스니 엇지하나요」법학사가 기침을 하
며서「그야 사실해 보아서 만일」농부「여보 댁소가 죽
엇다 할때는 사실도 업고 만일도 업시 물어노라 합디
다그려 두말 말고 내소 불러 노시오」하니 법률학사가
아모말도못하더라

六十一 이소푸의 지식

이소푸가 남의 종으로 잇슬때에 하로는 그 주인이 이소푸를 목욕집에 보내여 사람 유누를 알고 오라하였더니 이소푸가 가본즉 목욕집 문압혜 큰돌 하나가 잇서 출입하던 사람이 만히 그돌에 걸녀 너머지되 다 모르던 체 하더니 그중에 한사람이 그돌을 굴녀 걸녀지 아늘 데로 치여 늦거늘 이소푸가 그 주인씨와셔 목욕집에 사람 하나 밧씩는 업십되다 한대 주인이 고지듯고 곳 가본즉 목욕집에 사람이 가득한지라 주인이 이소푸를 썩지져 왈「이 만흔 사람을 보고 와서 하나 밧씩 업다 함은 엇진 일이뇨」이소푸가 대답하되「앗가 본즉

목욕집 문압혜 돌하나가 되여 들고 나넌 손님이 만히 너머지되 그 돌을 치우넌자가 업더니 다만 한손님이 그 돌을 업시할 지각이 잇스니 그밧씩는 사람이 업다 하였나이다」하더라

六十二 데종과 검의

염라대왕이 썰 형테를 두엇스니 하나는 데종이오 하나는 검의라 인간의 내여 보낼새 각기 그소원을 물은대 데종이 말하되「부자와 귀인들은 고대광실에 잘살고 의원도 만코 약도 혼한즉 나를 편히 붓쳐두지 아니할터이니 나는 시골 의원도 업고 약도 업넌 촌가에 농부의 집으로 보내주소서」한대 검의는「나는 조흔 대궐로

보내시면 널직한데 내마음대로 줄을치고 집을 짓겟나이
 다」하거늘 염라대왕이 그소원대로 보내엿더니 검의는
 대궐안해 기중 조흔 침방에 들어가 줄을챜더니 아츰마
 다하인들이 들어와서 비로 사면 구석을 슬어 검의줄이
 잠시도 용납할수 업고 또 테증은 농부의 집에 가서
 살너하나 농부가 날마다 일즉 자고 일즉 일어나 논과
 밭과 산으로 종일 쉬지안코 일할애 음식이 잘 소화하
 야 테증이 틈을 탈 길이 업넌지라 테증과 검의가 다
 시 의론하고 거처를 밭고와 테증은 고량진미애 저즌
 귀인의집으로 가서 잇스되 의원과 약이 감히 썩지 못
 하고 검의는 구차한 농부의 집에 가서 욕심대로 줄을

치되 썰어내년 자가 업더라

六十三 재앙쥐와 고양이

재앙쥐가 구녕을 썩나 세상 구경을 나갔다가 도로와서
 어미쥐다려「어머니 오늘 조흔 구경 만히하였소 두 즘
 생을 보았난데 하나는 털이 곱기가 비단 갓고 목소리
 가 나긋 나긋 한것이 노르스름한 눈을 내려감고 모양
 이 점잔코 온순하되 한놈은 턱밧과 대강이에 불근 살
 점이 뒤룩 뒤룩 하며 활개를치고 소리를 엇지 몹시
 지르난지 내가 고만 혼이 나서 오나라고 그럴 고흔즘
 생과 인사도 못해서 분해 못견디겟소」어미쥐「이 철업
 난 자식아 지각 업난 소리 마라 그 날개 치고 소리

지르던 것은 일흔이 숫답이라 외모는 흉해도 마음은 착하야 우리의 평생 시비가 업스되 고 얹잔하고 눈 내려 감고 있던놈은 고양이라 것흔 공순하나 속은 간 흉하야 네가 열혜만 갖더면 죽엇슬터이니 부대 외모로 친구 사귀지 마라」하더라

六十四 장사와 시비

한 장사가 길을 가는데 조고마하고 이상한 좀생하나히 덤비거널 장사가 철퇴를 빼여 힘껏 싸림에 당장 죽을 줄 알엇더니 그 좀생이 삼배나 더커지고 더 무섭게 덤비난지라 장사가 더욱 분하야 용맹을 씬내여 친즉 그 좀생이 점점커지며 나중에는 산성이 갓치 길을 가

로막난지라 장사가 할은 지치고 분은 더하야 엇지할지 몰으더니 한로인이 지나다 보고「여보 이 소년 그 좀생의 일흔은 시비라 근들이면 커지고 가만두면 줄어지난 것이니 헛애 쓰지말고 몰으난체하면 저절로 업서지리다」하더라

六十五 이소푸와 바다물

이소푸의 주인이 친구들과 선유할새 술에 대취하야 룡담하다가 한친구가「자내 술을 그리 잘먹으니 이 바다물 다먹겠나」주인「다먹지 못 다먹으면 가대 전답을 다 자내 줄터이오 다 먹으면 자내 가대 전답을 나 주려나」친구「그리하세」하고 여러 중인 압해서 들이

약조한후 반지를 밧구어 맹세하고 허여졌더니 그 잇는
 날 주인이 술이 깨여 본즉 반지가 다른지라 괴이히
 녀기여 이소푸다려 물은대 이소푸가 작일에 약조한 말
 을 다하니 주인이 황겁하야 계교를 물은대 이소푸의 말
 이 「약조는 억일수 업스나 면할 도리는 잇스나 내말대
 로 하소서」하고 계교를 작당한후에 바다 가에 나가니
 내기할 사람과 구경군이 구름 갓치 뵈힌지라 이소푸가
 해변에 큰상을 늦코 상우혜 대접을 늦코 하인들이 국
 자를 가지고 돌나서서 바다물을 썬 내기로 차리며 주
 인은 상압해 가서 대접을 들고 바다물을 먹으려하니
 보난 사람들이 이상히 녀기여 주인이 밋친사람으르 생

각하야 혹 불상히녀기며 혹 조롱노하거날 주인이 한손
 에 바다물을 썬서들고 먹으려다가 다시 생각 하더니
 그내기한 친구다려 「우리 약조는 이 바다물을 내가 다
 먹음아 하였고 강물과 내불 먹자난 약조는 업스나 각
 처에서 뵈혀 들어오난 강과 내물을 자내가 먹어버리던
 지 다른데로 보내버리면 내 이 바다를 금방 다 먹음
 세」하니 여러사람이 그 말의 재조잇음을 칭찬하고 약
 조를과하더라

六十六 사지의 흥계

본래 사지의 외모는 영특하야 위풍이 름름 하나 힘은
 업서 다른 짐승들과 평교로 지내더니 산중왕이 된후에

여러 짐생을 모화듯코 말하되「여러 분의 덕으로 내가 산중왕이 되었스나 괴운이 업스면 내 동포 형제들을 보호하고 명령할수 업스니 여러분이 각기 힘을 조공식만 덜어주면 내 그힘을 가지고 백성의 행복을 도모하야 조공이라도 여러분의 호의를 저바리지 아니하리다」하거날 개와 도야지는 성질이 비루하고 양과 염소와 나귀는 쇼견이 업난지라 도야지가 총대로나서서「대왕님 처분이 지당하외다 님군은 하늘이오 백성은 싸이라 군명을 억의난 백성이 어대 잇스릿가 위선 신등의 힘을 반식 대왕씩 받치나이다」하니 여러 짐생들이 손벽을치며 도야지의 충성을 탄식하난중 코세리가 말하되「대왕

이 덕을 쥬장 하고 할을 구할것이 아니오 사지의 힘이 다른 짐생보다 십백배가 더되난날은 아모도 마음 늦코 잘수 업슬터이니 나는 도야지씨의 의견을 반대하오」이 말을듯고 당나귀가 유견 도포를 정제히하고 소리를 벽력갓치 질너 말하되「아니오 사지대왕씩 힘을 십백배 들이고도 날마다 맹자를 외여 들니여 짐생하나를 죽이려하여도 국인이 다 죽이난것이 가라한 연후에 죽이고 짐생 하나를 쓰려하여도 국인이 다 좃타한 연후에 써서 일동 일정을 맹자 말삼대로만하면 사지대왕의 괴운이 백만배 되기로 백성이 무서울것이 무엇이오」한대 여러 짐생이 나귀 소리에 놀내고 또 그 충성과

학행과 도포의 유건을 감탄불이 하며 사지는 속으로
 깃버하야 도야지는 쌀쌀원경 겸 귀족관 대제학 돈총공
 을 봉하고 나귀는 팔삭관 대사성 라팔원대총재 장이대
 장을 식하고 호박꽃 대수장을 주고 월급은 매일 쌀한
 못식 차하하니 다른 증생들이 도야지와 당나귀의 부귀
 함을 보고 벼슬할 욕심이 발동하야 각기 제 힘 반식
 후 십분지구식 밧치니 사지의 용맹이 졸지에 여러 증
 생보다 십백배가 더한지라 괴단할 바가 업슴애 곳 그
 자리에서 양과 개와 도야지를 마음대로 잡아먹고 나귀
 는 저녁 밥으로 잡으려한대 나귀가 맹자 말삼을 외되
 「국인이 개왈 가살이 아니면 못 죽이나이다」한대 사지

가 쌀쌀우스며 「이놈아 맹자말삼을 자세히 본즉 가부라
 하난 권은 국인의게 잇스나 살피 본후에 행하고 안
 기는 내게 잇스니 국인은 다 너를 죽이지 말나하나
 내가 내배속을 살피본즉 너를 먹어야 배가 부르겟다」
 하고 잡아 먹거날 코세리가 탄식하되 「여러 증생이 사
 지의 어육 됴은 나귀가 글 잘붓 늙는 닳이라」하고
 산중으로 가더라

六十七 말의 성명

하로난 여호가 말을 처음 보고 이상히 녀기여 늑대를
 차져보고 썩우되 「그놈 보니 다리는 설명하니 아조 못
 생겟데 우리 가서 잡아먹세」 늑대가 깃버하야 갖치가

서 본즉 말은 조곰도 아난체 안코 풀만 쏘어 먹거날
 여호가 「여보 이량반 누댁 이시오 우리 인사합세다」 말
 「예 조흔 말씀이오 내 성명은 내 뒤말에 써가지고 단
 이니 와 보시오」 여호 「우리 부모가 간난하야 나를 천
 자 한권도 못 가룻쳤스니 님 밭 보기로 알수잇소마난
 여귀 이천구늑대씨는 화족에 글잘 하기로 유명하야 마
 록관 대제학 사저 하엿스니 님 밭을 뵈시오」 한대 늑
 대가 여호의 칭찬을 깃버하야 말뒤로 가서 성명을 보
 려 한즉 말이 뒤굽을 보기 좃케 들엇다가 늑대 주둥
 이를 귀운잇게 한번 차니 늑대의 턱이 깨져 쌍에 잡
 버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날 여호가 웃고 들어서며

하난말이 「화족이 말죽만 못하고나」 하더라

六十八 로인과 당나귀

한 로인이 어린 아들을 다리고 나귀를 팔너 장에 갈
 새 한 행인이 보고 「이 지각 업난 로인아 어린아해는
 걸니고 나귀는 벨몸으로 가게하니 그래 아들이 나귀만
 못하단 말이오」 로인이 꾀그아들을 태우고 뒤 싸러 가
 더니 그 다음 행인이 보고 욱하난말이 「절문 놈은 타
 고 로인은 걸으니 어린놈이 호래자식이로고」 로인이 그
 아들을 나리고 자귀가 타고 가다가 녀인 둘이 보고
 손구락질 하며 「저 도척이 갓흔 로인 보아라 자가는
 타고 어린 아해는 걸니니 수염 갑시나 좀 하지」 로인이

그아해를 뒤에 올녀 늦크 돌이 타고 가더니 한 행인이
 이그 나귀가 남의 것이냐 못거날 로인이 자가의 나
 귀라한대 행인이 쌀쌀우수며 「택이 그나귀를 하도 몹시
 굴기에 남의 것인줄 알엇소 나귀 썰늘 보니 돌이타고
 가너니 메고 가는것이 낫겟소」로인이 그제는 나귀네
 족을 잡아매여 장삿대로 썩여 아들과 돌이 메고 장으로
 갔더니 장군들이 보고 엇지 웃고 조롱하던지 그로인이
 붓그럽고 분하야 아들과 나귀를 다리고 집에와서 탄식
 하되 「남의 싯만 맞추려다가 내일만 낭패하였다」 하더라
 六十九 황새와 부어
 한 늘근 황새가 눈이 어두어 물속을 잘보지 못하야

고기를 잡을수 업난지라 하로난 방죽가에 안저서 생
 각하더니 부어한마리가 물우헤 소서단나거날 황새가 정
 다히 인사하되 「부참봉 평안하시오」 부 「택은 요사이 관
 보도 못보시오 내가 직각 한지가 벌써 몇철이오」 황
 「내 몰났소 그려 치하좀합세다 그러나 안된일 잇소 어
 제 내가 여기 섰노라니 방죽주인이 어느 친구와 이야
 기하난데 이보름 안으로 이 방죽을 다 치고 고기를
 잡겟다합디다」 부어가 그 말을 듯고 급히 물속으로 들
 어가 어죽 종회를 모흐고 황새의 말을 반포하니 종회
 의서 부직각을 황새의게 대표로 보내여 고기 사회를
 보전할 방침을 물은대 황새가 혼연히 대답하되 「자 조

흔 수가 잇소 저 산밧헤 내가 여름이면 피서하려고
만들어둔 연못이 잇스니 부어국 팔백만 동포를 내입으
로 하나식 피서다가 그연못에 늦코 여러분의 편안함
을 보호하여드리다「한대 부어들이 황새의 의기와 은
혜를 감사하야 그말대로하였더니 황새가 고기들을 물
어다가 앗흔 못에 느어두고 날마다 마음대로 잡아막더
라

七十 즘생의 재판

한번은 산즘생중에 몹슬 병이 퍼져서 만히 죽난지라
여러 즈생들이 회의하고 택일하야 각기 지은 죄를 자
복하야 그중 큰죄 지은자를 죽이여 산신의 노염을 풀

자하야 여호로 재판관을 삼어 여러 즈생의 공초를 밧
을새 사지가 묻져 말하되「내가 무죄한 양과 개를 만
히 죽이고 또 하로난 배가 엇지곱흐던지 양 보난 사
람까지 잡아먹엇스니 내죄가 대단히 크지마난 나는 산
중왕이니 알아하시오」여호가 우수며 공손히 말하되「황
송하의다 대왕님이야 못생긴 양 마리나 잡수섯던지 살
인을 좀하섯던지 무슨 죄가 되오릿가」하니 여러 즈생
이 여호의 총직함을 감탄하난지라 그 다음에난 호랑이
늑대 곰 표범이 차례대로 살생한 죄를 자복할애 여호
가 다 조흔말노 무죄 방면으로 선고하거날 당나귀가
눈물을 흘니며 자복하되「나는 누구를 해친일은 업스나

하로난 길가다가 배는 곱히고 먹을것은 업서 억지로
 참다 못하야 절압해 잇난 풀을 두어 입사귀 쫓어 먹
 었스니 용서하.....」 말을 맛초기 전에 여호가 눈을
 불음뜨며 소리를 질너 벽력갓치 호령하기를「용서 이놈
 용서 붓처님 계신 절 압해 잇난 풀을 먹다니 그런
 런디간 대죄을 범하고용서가 다무엇이나 녀갓흔 큰 죄
 인을 죽여야 산신의 노임을 풀고 여러 짐승의 청백한
 명예를 손상치안겜다」하고 곧 나귀를 잡아 산신씨 고
 사 지내고 고기난 먹여바리니 재판관의 지공무사한 송
 성이 산중에 가득하더라

작은 도적질하면 증역이오 큰 도적질하면 부귀

隆熙二年七月二十五日印刷

隆熙二年七月三十日 發行

一九〇八年

定價金貳拾五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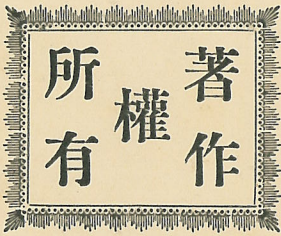
著 者 尹 致 昊
 京城中部典洞

校 閱 者 鄭 雲 復
 京城北部小安洞

印 刷 者 吉 田 幸 吉
 京城大和町一丁目

印 刷 所 京 城 日 報 社
 京城大和町一丁目

發 行 所 大 韓 書 林
 京城北部小安洞十六統八戶



所有 著作

